



썰렁한 전통시장... 경기침체와 폭염, 대형마트 일일외 영업 재개 등으로 전통시장을 찾는 고객 수가 크게 줄고 있다. 사진은 이날 초 무더위로 텅 빈 광주 양동시장 모습.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전통시장 매출 곤두박질... 그저 '한숨만'

7월중 광주·전남 판매실적 전국 최하위

소비 위축·폭염에 체감 경기지수 최악

광주·전남지역 전통시장의 매출 실적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통시장의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각종 지표도 큰 폭으로 하락하며 곤두박질하고 있다.

경기침체와 폭염에 전통시장을 찾는 고객 수가 크게 줄어들고 최근 대형마트와 SSM(기업형 슈퍼마켓)들이 휴일 정상영업에 들어간 데 따른 것이다.

16일 시장경영진흥원에 따르면 지난달 광주지역 전통시장 매출실적 경기동향지수(M-BSI)는 38.9로 한 달 사이 32.6포인트 떨어지면서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다. 1년 전 매출실적 지수는 60.3으로 제주(69.5)에 이어 전국에서 두번째로 낮았다.

광주지역 전통시장 체감경기지수(M-BSI)는 42.8로 한 달 사이 37.7포인트 하락하면서 전국에서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 이는 2009년 6월(33.3)이후 2년 11개월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전남도 지난 6월 72.9에서 지난달 51.9로 21.0포인트가 떨어지면서 광주에 이어 전국에서 두번째로 하락폭이 컸다.

광주·전남의 전통시장 체감 경기지수 하락폭은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돌았다. 전국의 경우 평균 48.4로 전월 대비 12.0포인트 하락했다.

시장경영진흥원은 지난달 전통시장 체감경기지수가 나빠진 것은 지속적인 경기 침체로 인한 소비 심리 위축과 폭염 등으로 전통시장의 전반적인 인입이 크게 악화된 때문으로 분석했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M-BSI(Market-Business Survey Index)란? =전통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경기동향을 파악하는 지수. 100을 기준으로 미만이면 경기 악화, 초과하면 경기 호전을 뜻한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빚 못갚는 '불량대출' 연 80만명

집값하락·가계부채 부실 우려가 현실로

불량률 급증편 금융시스템 건전성 위협

'불량 대출자'가 최근 1년간 80만명 쏟아졌다. 소득이 적은 저소득층에서 급증해 10명 가운데 2명꼴이다.

'정상'과 '부실'의 경계에 선 한계 대출자가 더는 버티지 못하고 줄줄이 부실 대출자로 주저앉고 있어 가계부채의 부실 우려가 점차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불량 대출자는 더 늘어날 공산이 매우 크다. 대출자 개인의 문제를 넘어 금융시스템의 건전성이 위협받을 수도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대응이 이미 한 발 늦었다고 지적했다. 여기서 더 허송세월하면 강력범죄와 이혼이 급증하는 등 사회불안이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나이스신용평가정보는 가계대출자 1667만6000명의 불량률이 올해 3월 말 기준으로 4.78%라고 16일 밝혔다.

금융회사에 빚을 갚지 못하고 불량 대출자가 된 사람이 한 해에만 79만 7000명 생겼다는 뜻이다.

주로 저소득자가 분포한 신용도 하위등급(7~10등급)은 불량률이 약 18%다. 고소득자 위주의 상위등급(1~3등급) 불량률이 1%를 밑도는 것과 대조된다.

하위등급의 대출 불량률은 지난해 3월 말 약 16%에 견줘 1년 만에 2%포인트 상승했다.

LG경제연구원 신민영 경제연구부 문장은 "소득 1분위(하위 20%)는 저축률이 줄곧 마이너스다"며 "빚이 쌓이고 쌓여 채무 불이행으로 폭발한 것"이라고 말했다.

저소득층을 대거 불량 대출자로 몰아넣은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주택담보대출의 부실이다.

주택담보대출 불량률은 평균 2.49%다. 그러나 하위등급은 8등급(20.30%), 9등급(29.69%), 10등급(45.90%) 등으로 평균치보다 압도적으로 높다.

삼성경제연구소 김선빈 수석연구원은 "고용시장 경색과 자영업자 급증으로 저소득층이 여기저기서 빚을 냈다가 집값 하락의 '폭탄'을 맨 먼저 맞았다"고 지적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지난달 대출자 6만2000명을 조사한 결과 다중채무자(여러 금융회사에서 빚을 낸 대출자)의 30.6%는 자영업자로 파악됐다. 다중채무는 특히 5등급 이하 저신용층에 치명적이라고 자산관리공사는 설명했다. 소득이 받쳐주는 1~4등급은 '4중채무'까지 견딜 수 있지만, 5등급 이하는 여러 곳에서 대출할수록 신용도에 직접 악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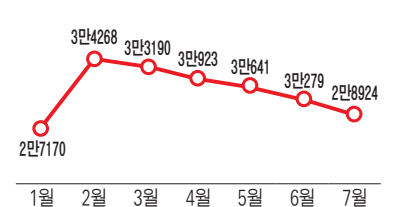
연합뉴스

'수출 효자' 자동차 마저도...

EU시장 등 소비 부진 2년7개월만에 뒷걸음질

기아차 광주공장도 파업 여파 5개월연속 감소

기아차 광주공장 수출 물량 (단위:대)



수출 효자 노릇을 하던 자동차 수출이 2년7개월 만에 뒷걸음쳤다. 대 EU(유럽연합) 수출이 급감한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다. 국내 완성차업체들의 파업에 따른 생산 차질도 수출 감소의 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16일 관세청에 따르면 6월 자동차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6% 감소한 데 이어 7월에도 6.7% 줄었다. 수출액은 6월 40억1000만 달러에서 7월 32억9000만 달러로 급감했다.

자동차 수출이 감소한 것은 2009년 11월(-11.6%) 이후 처음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재정위기 여파로 소비가 얼어붙은 유럽연합(EU)으로 수출되는 물량이 6월에 40.7%, 7월에 19.3% 줄어든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대미 수출이 2.2%, 대중국 수출이 17.4% 증가한 것과 대조적인 현상이다.

한국차 수출은 지난해 월평균 30% 가량 급증했다. 올해 상반기 증가율은 13.7%에 달했다. 평균 수출가격의 상승세 역시 둔화했다. 2010년 대당 1만 1508달러였던 평균 수출가격은 이듬해 1만3037달러로 20% 이상 올랐다. 그러나 올해 1분기 1만3256달러, 2분기 1만3327달러로 주춤한 모습이다.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의 생산실적을 보면 올해 2월 4만3152대, 3월 4만 3020대, 4월 3만9752대, 5월 3만9816대, 6월 4만570대 등 줄곧 4만대 안팎을 생산했다. 하지만 7월 들어 2차례 부분 파업과 이틀간의 하계휴가로 생산이 줄어 3만8833대를 기록했다. 지난해 7월 3만9568대와 비교하면 735대가 감소했다.

수출도 폭 떨어졌다. 광주공장의 수출물량은 5개월 연속 감소했다. 2월 3만4268대에서 3월 3만3190대, 4월 3만923대, 5월 3만641대, 6월 3만279대 등 3만대를 웃돌았다. 하지만 7월 2만8924대를 생산, 3만대가 붕괴됐다.

8대 주요 품목 가운데 7월 수출이 감소한 것은 자동차 외에도 선박(-58.3%), 무선통신기기(-24.8%), 가전제품(-15.7%), 석유제품(-11.4%), 반도체(-1.5%) 등 6개나 된다.

특히 한때 수출 1위 품목이었던 무선통신기기는 13개월 연속, 가전제품은 10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여 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

자동차와 함께 수출을 이끌던 자동차 부품의 수출 증가율이 5월 12.9%에서 6월 6.9%, 7월 3.3%로 둔화한 점도 걱정된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빛의만평

- 김중두

뒷감당은 내 알바 아니고...

"추경이라도 편성 서민경제 살려야"

새누리당 이정현 최고위원

새누리당 이정현 최고위원은 16일 "추경을 편성해서라도 서민경제를 부양시키고 미래 성장분야에 대해 과감하게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서구의 여러 나라가 채무 과다로 국가재정을 긴축운영하고 있어 미래투자가 줄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반대로 GDP(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가 양호한 편이라고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히 "당이 추경편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관철해야 한다"면서 "지금 보육정책의 변화 때문에 지자체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추경편성을 통해 적시에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다"고 강조했다.

그는 "서민경제를 돕기 위해 대형마트 안에 서민이 운영하는 상점의 입점 지원, 기온 상승으로 피해 본 축산업과 양식업 지원, 적조 및 녹조로 인한 수질 악화 개선 등에도 정부의 주도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연말부터 아날로그 TV 시장을 못하는데 정부 정책 변화로 TV를 못 보는 상황을 막기 위해 서민과 어려운 가정에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최고위원은 "이를 위한 방안은 추경을 서둘러서 편성하는 것"이라며 "정부를 적극적으로 살뜰해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내야한다"고 강조했다.

사랑으로 지은 집, 사랑이 가득한 집!

행복의 문이 활짝!

교통, 교육, 환경, 생활인프라, 그리고 미래까지 더해진 광주 첨단 2지구 '사랑으로, 부영'으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광주 첨단 2지구 '사랑으로, 부영' 아파트 1,772세대 분양!

주택형 (세대수)	분양금			분양금 납부 방법			문의전화
	분양가	옵션	계	계약금 (계약시)	중도금 (12.10.30)	잔금 (입주시)	
60.46㎡	1,184	15,340	560	15,900	1,534	4,602	9,204
84.36㎡	588	21,150	650	21,800	2,115	6,345	12,690

전국 어디서나 1577-5533

*상기 금액은 기준층 기준입니다. *옵션: 별도 확인

- 우수한 교통환경** 국도 1호선, 제2순환도로, 담양 및 호남고속도로와 북광주 IC의 조성으로 초광역 교통망의 중심이 된 특급 교통환경
- 우수한 생활환경** 정부광주합동청사, 식약청, 국제청 등의 공공시설이 5분거리에 위치하며, 대형마트, 놀이공원, 근린공원 등이 근접한 특급 생활환경
- 우수한 교육환경** 초, 중, 고등학교(개교예정)가 단지옆에 조성되며, 우수학교 및 광주과학기술원, 전남대 등이 인접한 특급 교육환경
- 우수한 미래가치** 디지털가전산업 등 첨단산업단지과 낙낙한 녹지조성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이 갖추어질 연면적 2백만㎡에 이르는 첨단 2지구의 특급 미래가치

입주자를 위한 설치 품목

홈오메이션 / 디지털도어록 / 가스오븐렌지 / 음식물탈수기 / 행주도마살균기 / 전자비데 / 세제디스펜서

http://gwangju.booyoung.co.kr **(주) 부영주택**

*상기 내용은 소비자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입니다. *공급량: 광주광역시 북구 신원동 72번지 *공급규모 및 내역: 아파트 지하 1층, 지상 12~25층 1,772세대 및 부대시설 *분양대상: 청약제도에 따라 *시행: (주)부영주택 *시공: (주)부영건설

공급 일정

- 특별공급: 8월 20일(월)
- 1순위: 8월 21일(화)
- 2순위: 8월 22일(수)
- 3순위: 8월 23일(목)
- 선착순: 8월 30일(목)

**모델하우스
개관중!**

**2013년 1월
입주예정!**